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5년 9월 2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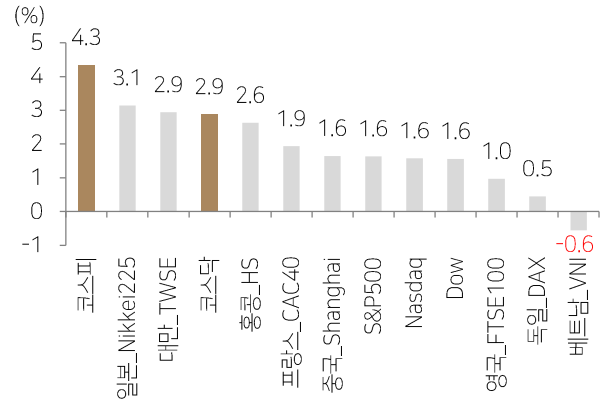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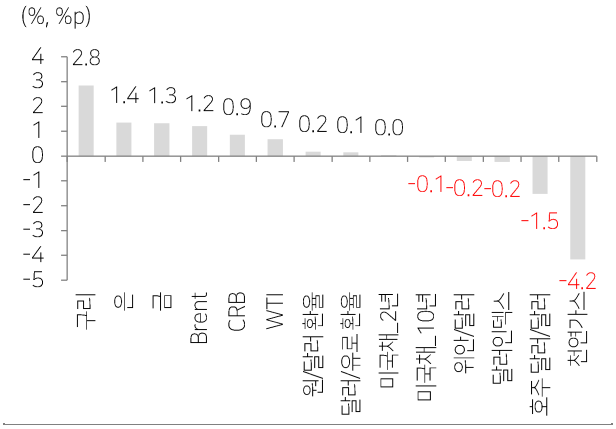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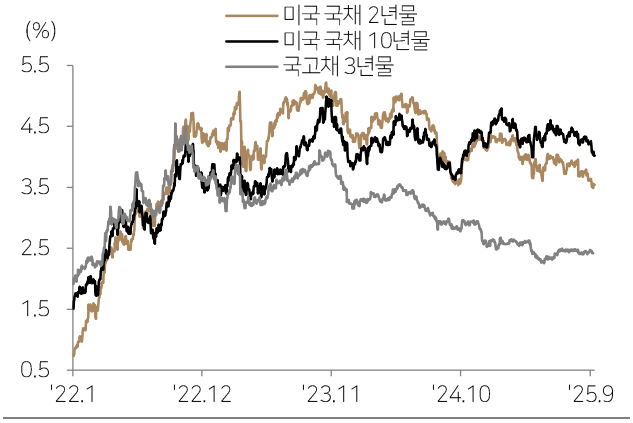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9/5일 대비 9/11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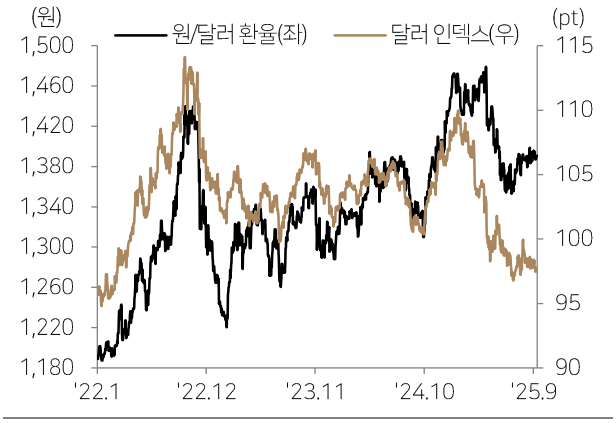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9/5일 대비 9/11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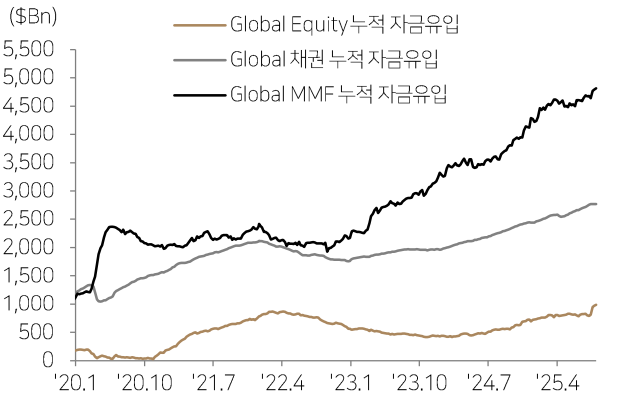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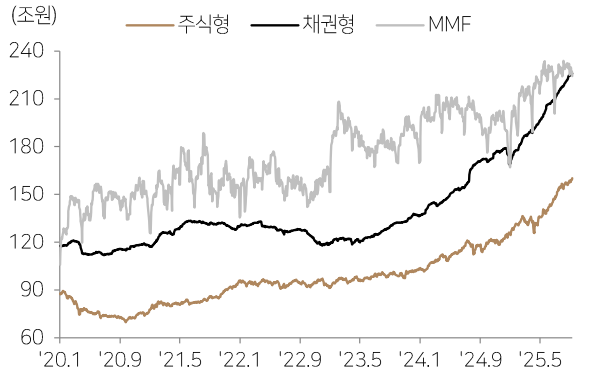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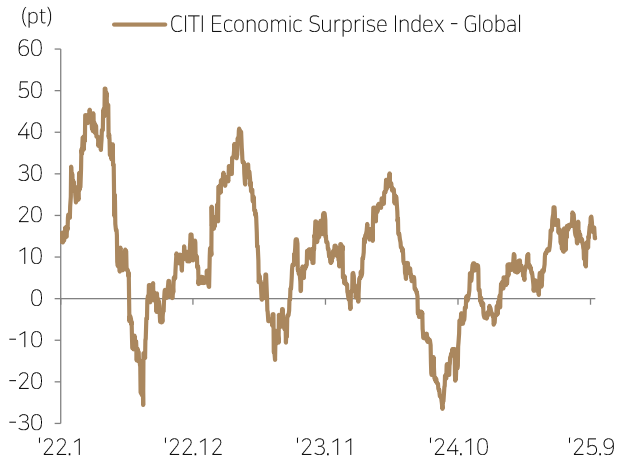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주중 물가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불안감은 잔존. 다음주 초 발표되는 미국 수입물가도 확인해 둘 필요. 관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년 비 -0.1%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MoM으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관세의 본격적 반영이 순차적으로 물가 지표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 둘 필요
- 일본의 물가도 발표될 예정. 당초 10월 금리인상에 대한 전망이 우위에 있었으나 최근 이시바 총리의 사임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무역협상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파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시점 전망은 연말 혹은 내년 초로 조금 씩 밀리고 있는 동향. 만약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가질 필요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5-09-15	중국	8월 산업생산	%yoy	5.6	5.7
2025-09-15	중국	8월 소매판매	%yoy	3.8	3.7
2025-09-15	중국	8월 실업률	%	5.2	5.2
2025-09-16	미국	8월 수출/입물가지수	%mom	0.1/-0.2	0.1/0.4
2025-09-16	미국	8월 소매판매	%mom	0.3	0.5
2025-09-16	미국	8월 산업생산	%mom	0.0	-0.1
2025-09-16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Index	-	32
2025-09-17	유로존	8월(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2.1	2.1
2025-09-17	미국	8월(잠정) 건축허가	%mom	0.6	-2.2
2025-09-17	미국	8월 주택착공	%mom	-3.7	5.2
2025-09-18	일본	7월 핵심기계수주	%yoy	5.3	7.6
2025-09-18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mom	-0.1	-0.1
2025-09-19	일본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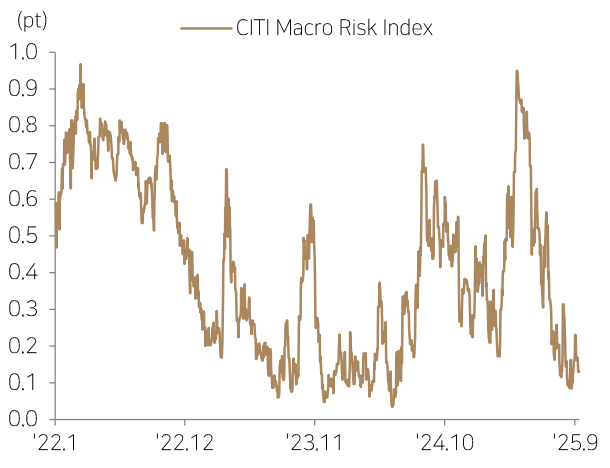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9/18	미국	상	9월 FOMC	▪ 한국시간 18일 오전 3시 9월 FOMC 진행. 이번 9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와 더불어 점도표, 경제전망요약(SEP)이 공개될 예정. 25bp 인하와 함께 26년 점도표가 소폭 하향되는 점진적 인하 경로 제시가 가장 우호적 시나리오 ▪ 고용보고서 공개를 기점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대. 12일 기준 9월 25bp 인하 확률 93%, 50bp 인하 확률 7%로 형성 중(CME FedWatch)
9/18	영국	중	BOE 통화정책 회의	▪ 한국시간 18일 오후 8시 BOE 통화정책회의 예정. 8월 BOE 통화정책회의에서 영란은행은 총 2번의 투표를 거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4.00%로 결정 ▪ 프랑스와 더불어 영국 또한 예산 및 재정 우려가 고조되자 9월 2일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는 9월 한때 5.75%까지 상승. 영국 CPI가 올해 2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어 시장 컨센서스는 동결로 형성
9/19	일본	상	BOJ 금융정책 회의	▪ 19일 오전 중 BOJ 금융정책회의 진행 예정. 직전 7월 금융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 결정 ▪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총재직 사임 발표한 직후 일본증시는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유입되며 강세. 7월 금정위 의사록에서 정책위원들은 경제와 물가가 전망에 부합할 경우 인상을 진행할 것으로 언급. 시장 컨센서스는 0.50% 금리 동결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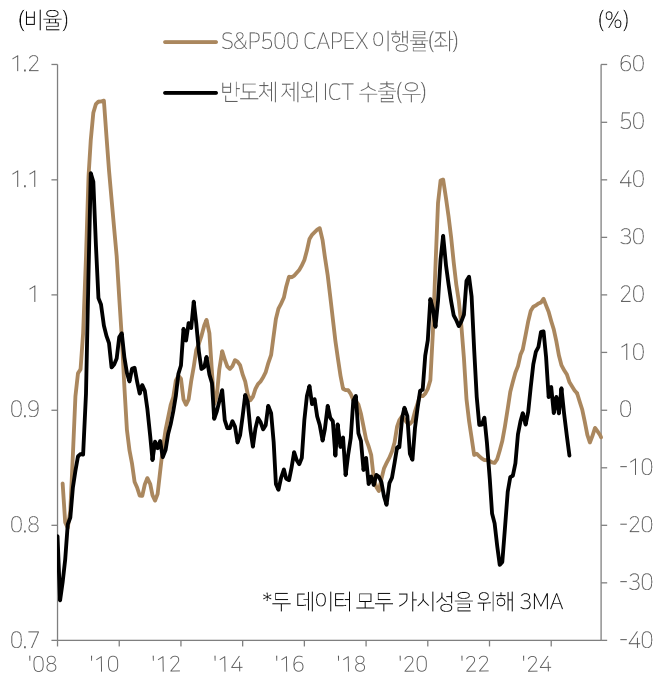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9/8~9/11) 증시 동향	▪ KOSPI(+4.3%), KOSDAQ(+2.9%) 상승. KOSPI는 증권(+9.4%), 상사,자본재(+8.2%), 반도체(+7.8%)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유틸리티(-3.5%), 디스플레이(-1.6%), 미디어,교육(-0.2%) 업종 하락.전주 금요일 미국의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로의 미국산 장비 도입 허가 소식에 기술주 하락 출발. 대통령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현행안(50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발표하자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DOW(+1.6%), S&P500(+1.6%), NASDAQ(+1.6%) 상승. 주초 미국증시는 프랑스 바이루 총리가 의회 신임투표에서 과반수 반대로 인해 사퇴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되었으나, 마크롱 대통령의 신임 총리 발표에 증시 영향 제한.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관세발 인플레이션 영향이 우려 대비 크지 않자 금리인하 기대 확대. 미국채 금리는 금리인하 기대감에 매수세 유입되며 10년물 금리 3.9%대로 하락. 달러 인덱스는 인하 기대감과 고용둔화 우려가 혼재된 모습을 보이며 97포인트대에서 등락
차주 (9/15~9/19) 증시 전망	▪ 물가지표 확인 과정에서 변동성의 확대를 걱정했으나, 지수는 강한 상승 시현. 예상에 부합하는 물가가 확인됐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AI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호조를 보이며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국내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증시 관련 시장의 니즈를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 강한 상승세를 보인데다 FOMC가 예정되어 있어 일시 관망세가 형성될 수 있으나, 연초까지는 점진적인 속도의 금리 인하가 전개되며 단기적인 등락은 있더라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소비부터 시작되는 사이클적인 경기회복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주도의 CAPEX라고 판단. 여전히 기존 주도주(조선, 방산)의 유효성은 남아있으며, AI 부문에서는 소부장과 전자부품, 전력기기 등 AI인프라에 대한 관심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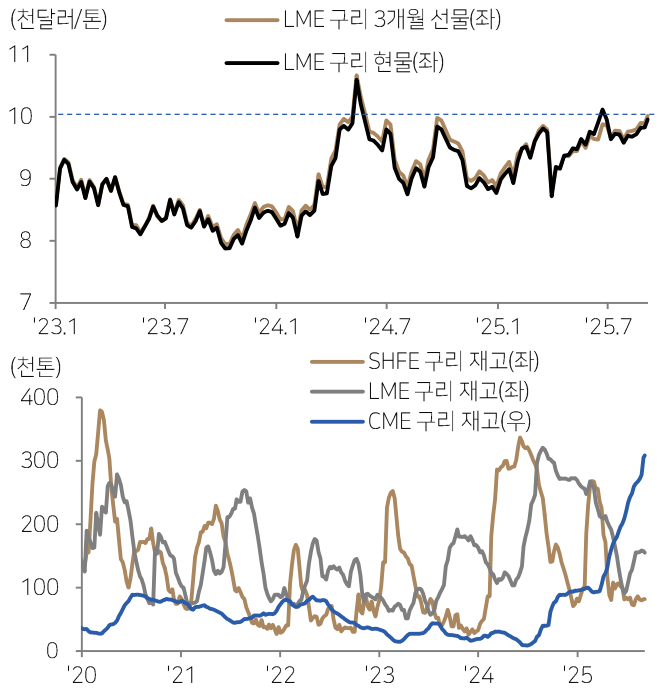
한국 ICT 수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투자 이행률이 바닥을 형성 중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지난 주에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국의 수출은 연말로 가면서 추가적인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선행지표 측면에서 고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ICT 제품들의 수요와 관련해 미국의 투자 사이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때문에 당사에서는 동일 시점에서 미국 S&P500 지수의 후행 CAPEX와 선행 CAPEX의 비율을 계산해 이를 미국 대기업들의 실제 투자 이행율의 프록시로 활용하고 있음. 그리고 이 이행률은 한국 ICT 수출 사이클에 1년 선행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
- 고무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 2분기 이후 해당 지표가 전저점 영역에 도달한 뒤 추가 하락이 방어되고 있다는 점. 즉, 현 시점에서 한국 수출은 추가적인 둔화 우려가 존재하지만, 선행지표인 미국 투자 이행률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저점 확인 후 회복 국면 도래에 대한 기대를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

다시 10,000$ 문턱에 도달한 구리 가격. 가격 레벨업 가능성 존재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구리 가격(LME 3개월 선물)이 다시 10,000$ 고지에 도달. 지난 2024년 AI향 전력 수요라는 동인과 함께 강한 상승세로 10,000$ 고지를 처음 진입했던 구리 가격은 한동안 박스권 등락을 거듭한 끝에 다시 10,000$ 대 안착을 시도 중
- 구리 재고를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남. 글로벌 거래소 기준으로 시카고 재고는 올해 급증세를 보인 반면, 런던과 상하이의 재고는 바닥권. 이런 움직임의 가장 큰 동인은 트럼프의 구리관세, 즉, 관세 인상 전 재고 확충을 위한 움직임
- 글로벌 구리재고는 23~24년 중 증가추세를 시작. 이는 AI나 친환경, 전기차 등 수요 발생과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그러나 최근 재고 이동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지역은 재고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요 구조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고율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 재고가 풀려나올 개연성은 낮고, 구리 공급이 폭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구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음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